

5:00,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다. 으어음, 학교에 가야 하는데 따뜻한 이불은 좀 더 자라고 나를 읊아댄다. 잠깐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지.

5:40, 또다시 울리는 알람. 네네, 아오, 일어납니다. 일어나요! 알람을 켜는데, 휴대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시계는 벌써 오전 5:40? 어우, 타임머신을 탔나, 눈 한번 감았다 떴을 뿐인데! 무거운 몸뚱이를 재촉해 이불로부터 벗어났다. 교복으로 갈아입고, 씻었다.

6:10, 밥을 먹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, 밥이 없다. 으음, 결국 시리얼로 아침을 대신하기로 했다.



<견과류를 더한 시리얼, 호상발효유, 약(?)>

시리얼에 견과류를 뿌려먹으면 나름 맛있다. 입 안이 좀 까끌한게 흠이지만.

저번 주부터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갈색의 분말가루를 물에 타서 먹고 있다. 정체가 뭘지는 모르겠는데, 어머니께서 몸에 좋으니까 꼭 타먹으라고 당부하셨기에 꼬박꼬박 마시고 있다.

TV에서는 아이 4명을 데리고 중국 여행을 다니고 있는 김길수 씨 부부의 이야기 재방송되고 있다. 나는 글로만 알고 있는—그 마저도 알팍하다.— 일들을 저 아이들을 직접 보고 느끼는 모습을 보자니 부러웠다.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여행을 가보겠다는 생각을 했다.

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“잘 먹었습니다.”, 불을 끄고 집을 나서며 “다녀오겠습니다.” 인사를 하지만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니 대답은 없다.

6:36, 집 앞의 버스 정류장으로 가니 벌써 63번이 도착해 승객을 태우고 있다. 으악, 망했다! 부리나케 뛰어갔지만, 아아, 내 버스님은 갔습니다.



<주안1동사무소 버스정류장>

결국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. 눈앞에서 놓쳤으니 또 한 대가 오려면 꽤 걸리겠지, 에휴.

가만히 앉아있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. 날씨가 별로였으면 기분이 더 팍이었을 텐데, 덕분에 그래도 기분이 하날 나아졌다.

6:45, 63번 버스가 도착했다. 주말이라 그런지 승객은 나를 포함해 4명뿐이다. 도로에도 차가 듬성듬성 달리고 있다. 버스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쏜살 달려간다.

6:54, 학교 앞 정류장에 내렸다. 와, 9분 만에 오기는 처음이다. 매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.

학교 앞 도로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, 인도에도 사람이 없다. 축축한 아침 공기가 이에 더해지니 꼭 영화에 나오는 유령도시 같다. 그런데 공기가 진짜 축축한데, 설마 비가 오려나? 우산 안 가져왔는데 헐.

7:00, 교실 불을 켜고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은 뒤에 환기를 위해 양 쪽의 창문을 열었다. 탁한 공기가 조금은 나아지는 듯하다.



<인천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>

무거운 마이와 와이셔츠를 벗고 생활복으로 갈아입었다. 생활복을 입고 등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이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교칙이긴 한데, 불편해도 교칙은 교칙이니 따르는 수밖에.

이번 회장의 공약 중에 생활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, 전혀 변한 점이 없다. 췌, 공약은 지켜야지! 하여간 누구든 공약을 걸어놓고 당선되고 나서 현실적이지 않다며 취소하는 인간들은 마음에 안 든다. 사기치는 거랑 뭐가 다른가. 그런 검토는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하셨어야죠. 당선되려고 이것저것 막 내뱉는 성향들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좀 고쳤으면 한다.

순찰중이시던 수위님이 교실로 찾아오셔서 인사를 드렸다. 언제나처럼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. 아, 이제 공부 해야지.

12:30, 슬슬 점심 때가 되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.

공부할 때 호루라기 소리라던가, 합성소리라던가 무슨 행사였는지 궁금했는데, 나갈 때 확인해 보니 동문 운동회였다. 현재 인고에 계시는 선생님이 몇 분 보이신다, 오오.

일요일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아서 맨 끝에 있는 맛있지만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의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.



<무려 4000원짜리 돈가스>

12:46, 주문한 돈가스가 나왔다. 4천원답게 양도 많고, 맛있었다. 가끔은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지 싶다. 배부르게 잘 먹고 교실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했다.

14:48, 시험 마지막 날부터 계속 되던 두통과 이명이 시험이 끝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다. 어제와 이것들 때문에 일찍 집에 갔는데, 오늘도 그럴 수는 없지. 버티자.

16:10, 결국 행복. 계획보다 1시간 일찍 학교를 나왔다. 이발을 할 계획도 있었으나 다음 주로 미루고, 일단 집으로 가서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버스 정류장으로 오니 전광판에 63번이 잠시 후 도착한다고 떠 있었다. 그분이 오실 방향으로 고개를 향하니 마침 오고 계신다. 오옷, 황재다! 잠시 두통을 잊고 가뿐하게 버스에 올라탔다.

2044.10 OCTOBER						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	1
2	3	4	5	6	7	8
	계절일		추석		후조전 휴가!!!!	
9	10	11	12	13	14	15
한글날						
16	17	18	19	20	21	22
23 / 30	24 / 31					

<2044년 10월 달력>

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흔하지 않은 장기휴일이라며 게시글로 올라온 2044년 10월 달력을 보게 되었다. 와, 2044년이면 31년 뒤. 나는 딱 50세가 된다. 그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. 내가 꿈꾸는 일을 하고 있을까. 아니면 엄청나게 예상 밖의 일을 하고 있을까. 사랑하는 사람은 만났을까.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. 아직은 무척 먼 이야기로만 느껴진다. 저때 행복하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쪽이 좋겠지. 아, 역시 팬히 나왔다. 더 공부를 할 걸 그랬어.

16:25, 집에 오니 아무도 없다. 쳇, 옷 갈아입고 잠이나 자자.

19:00, 문득 일어나보니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. 밖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다. “다녀왔습니다.” 인사를 드렸다. 어머니 옆에 앉아서 TV를 시청했다.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1박 2일이다.

19:50, 1박 2일이 끝나고,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했다. 함께, 라고 하기엔 내가 한 일은 식탁으로 반찬과 수저를 나르는 일 정도뿐이었다.



<간만에 어머니와 먹는 저녁식사>

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머니와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이 힘들어졌고, 따로 사는 누나들과 아버지와는 얼굴도 보기 힘든 지경이다. 급우들 얼굴은 정말 하루 종일 보면서 가족들 얼굴은 일주일에 한번 보면 다행인 지경이니, 참 서글프다.

21:00, 드라마 시청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. 인터넷을 켜보니 요새 한창 난리인 윤창중 씨 관련 기사들이 가득하다. 어휴, 국격이 수직상승하는 소리가 들리네.

23:00, 하루를 끝맺을 시간이 다가왔다. 일과인 팔굽혀펴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하고, 한약과 비슷한 류로 추정되는 약을 먹었다. 이 약은 요새 잠을 잘 못 잔다고 투덜거리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약인데,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.

23:40, 내일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라도 이제 잠을 잘 시간이다. 두통이 내일은 나아지기를 빌며, 수능 180일 전날을 이만 마친다.